

한국사

2015. 4. 18 국가직 9급 공무원 출제 경향 분석

I. 출제 빈도 분석

1) 단원별 문항 분석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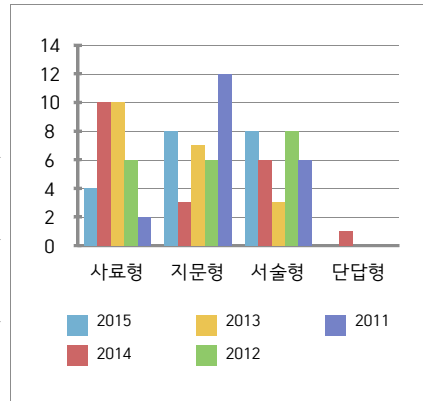
● 2014년

출제영역	수	출제 주제	유형	난도	수	출제 주제	유형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0	-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구석기~철기)	1	• 신석기 사회 모습	지문	상	1	• 구석기 유적지	단답
고대 사회의 발전 (삼국~남북국)	3	• 순장	지문	중	4	• 고구려 풍습	사료
		• 통일 신라 지방 행정 조직	서술	하		• 삼국 금석문	지문
		• 원효와 의상	지문	중		• 통일 신라 불교(선종)	지문
중세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3	• 최승로의 개혁안과 성종	사료	중		• 토지 제도	사료
		• 고려 사회의 모습	서술	하	4	• 공민왕의 업적	사료
		• 고려 농민을 위한 정책	서술	하		• 신분 제도(종류층)	서술
근세 사회의 발달 (조선 전기)	3	• 조선 전기 중앙 정치	서술	하		• 고려의 행형제도	서술
		• 조선 전기 사림	서술	중	2	• 삼별초	사료
		• 과전법과 그 변화	서술	하		• 농사직설	지문
근대 사회의 태동 (조선 후기)	3	• 균역법과 영조	사료	중	5	• 성리학	서술
		• 조선 중인	사료	중		• 정조의 업적	사료
		• 조선 후기 경제 동향	사료	하		• 인구 변화	사료
근대 사회의 전개 (구한말)	3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지문	중		• 홍대용	사료
		• 대한국 국제	서술	하		• 천주교	서술
		•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지문	중		• 세도정치(순조)	사료
민족의 독립 운동 (일제시대)	1	•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지문	하	2	• 한국 광복군	서술
현대 사회의 발전 (광복 전후~현대)	2	• 광복 전후의 사건	지문	중	2	• 3·1 운동	사료
		• 한국 전쟁과 휴전협정	지문	중		• 광복 직후 결성된 정당	지문
통 합	1	• 우리나라 농서	서술	중	0	• 4·19 혁명	서술

2) 유형별 문항 분석

2015년 ~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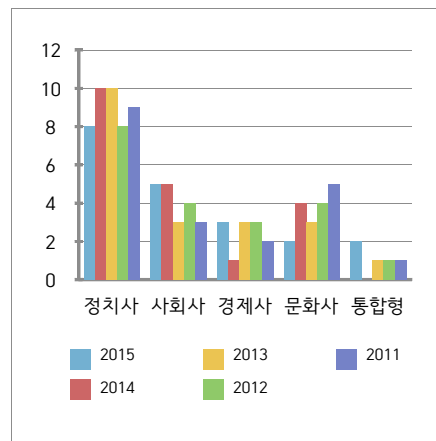
출제유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사료형	4	10	10	6	2
지문형	8	3	7	6	12
서술형	8	6	3	8	6
단답형	0	1	0	0	0



3) 제도사별 문항 분석

2015년 ~ 2011년

출제유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정치사	8	10	10	8	9
사회사	5	5	3	4	3
경제사	3	1	3	3	2
문화사	2	4	3	4	5
통합형	2	0	1	1	1



II. 출제 경향 분석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남아 있는 시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경향 분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1년 정도의 수험생 입장에서 평가는 평이한 난도(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문항은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으며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전반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는 단순히 지엽적인 역사적 사실을 묻거나 난해가 사료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지문과 역사적 사실을 단지 연계하는 수준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신석기 문제, 농서, 성종 등 일부 선택지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갈등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민주국사

2015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과 대책

첫째, 단원별로 보면

2015년 근현대사 문제가 6문항 출제되었으나 일제시대가 1문제 출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각 단원의 분량에 맞추어 적절한 출제 문항이 출제되었다.

국사는 고득점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특정 단원에 치우쳐 학습하는 것보다 전 단원에 걸쳐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며, 정선된 수험서를 선택(민주국사?)하여 다(多) 회독을 통한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사항은 정독을 통해 이해를 토대로 암기와 사료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형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료형 문항보다 서술형이나 지문형의 문항의 출제비율이 높았으나 이번 시험의 경우 사료형의 출제 비율이 종전 10문제 정도에서 4문제로 좀 더 축소되는 등 유형의 변화가 일시적이나 있었다.

결국 수능과는 다른 공무원 시험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이번 시험처럼 흐름을 파악하여 시기 구분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사별로 보면

큰 틀에서 제도사로 분류해 보면 정치사 문제가 8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교해서 문화사 부분이 학습 분량으로 볼 때 1~2문제가 적게 출제되었다고 본다.

결국 정치 흐름과 각 제도사가 연계되어 학습이 필요하며 지방직은 특히 문화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Ⅲ. 지방직 등 향후 학습 방향 조언

시험은 참으로 기쁨과 아픔의 칼날입니다. 그래도 칼의 용도가 좋게 더 많이 쓰이듯이 시험을 기쁨으로 만들려면 그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노력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흥미 위주의 수업이나 학습보다는 실질적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즉 시험 범위가 적절하고 공무원 시험유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득점을 얻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남은 지방직 시험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먼저 과목 안배를 잘 하시고 부족한 과목에서도 유형과 단원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여 확실한 합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 국 사

담당 박 민 주 교수

문 1.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 ② 외거 노비가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 ③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科擧)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 ④ 향·부곡·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 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하였다.

◆ 출제 영역 : 고려 사회의 모습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385, 390, 400, 453페이지

■ 해설 : ④ 향이나 부곡은 농업을,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하는 특수 행정 구역 거주자로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 하층 양민이기에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일반양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 ① 천민 출신인 이의민은 정중부 때 일어난 김보당의 난을 수습하면서 성장하여 경대승 이후 최고 권력자가 되어 중방을 통해 정치를 장악하였다.
- ②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재산을 소유하였기에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일반 양인과 유사하였다.
- ③ 지방 향리의 자제는 현종 때 시행된 주현공거법에 의해 과거(科擧)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문 2. 조선 전기(15~16세기) 사림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다.
- ② 향사례(鄉射禮),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였다.
- ④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많이 세웠다.

◆ 출제 영역 : 조선 전기 사림의 동향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926~927

■ 해설 : 조선 후기의 부농층의 성장과 더불어 관권과의 결탁으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어 사족 양반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고 청금록과 향안을 작성하거나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세워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민주국사

문 3.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신전, 흠양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② 공음전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하였다.
- ③ 세조대에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하였다.

◆ 출제 영역 : 과전법과 그 변화

● 정답 : ②

▶ 2015년 민주국사 483, 725~728

■ 해설 : ② 공음전은 경정전시과가 시행된 고려 문종 때 5품 이상 귀족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으로 귀족 세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문 4.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연표이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제우의 동학창시	삼례집회 (교조신원운동)	고부관아 습격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	↓	↓	↓	↓
	(가)	(나)	(다)	(라)

- ① (가) - 황토현 전투
- ② (나) - 청·일 전쟁의 발발
- ③ (다) - 남·북접군의 논산 집결
- ④ (라)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출제 영역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과정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 해설 : ① 황토현 전투는 (다) 시기
 ② 청·일 전쟁의 발발은 (나) 시기
 ③ 남·북접군의 논산 집결은 (라) 시기

문 5.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라 지증왕 3년의 순장 금지 사료(史料)
-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代用) 흙인형

- ① 전쟁 노비의 소멸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
- ② 농업생산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 ③ 죽음에 대한 의식(儀式)에 도교 사상이 반영되었다.
- ④ 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국사

◆ 출제 영역 : 순장

● 정답 : ②

▶ 2015년 민주국사 169페이지

■ 해설 : ② 지증왕은 우경을 보급하는 등 농법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으며, 기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순장을 금지하였다.

문 6.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①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 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 ②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 ③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 출제 영역 :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83, 87, ~89

■ 해설 : ③ 흑요석은 가벼운 타격을 통해 예리한 날을 사용할 수 있어 화살촉 등 여러 가지 도구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지로는 백두산과 철원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흑요석이 발견된 유적으로는 여수 송도와 안도리 조개더미 등으로 주변지역과 큐슈 등 원거리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엽적인 학설을 출제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나머지 예문이 시대가 확연히 다른 시기이기에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리라 본다.

- ① 잉여생산물의 축적으로 사유 재산 제도가 등장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 ②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에는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농사를 짓고 다른 부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 ④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은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이다.

민주국사

문 7. 조선 전기(15 ~ 16세기)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었다.
- ②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③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한국정치가 시작되었다.
- ④ 합리적인 인사 행정 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다.

◆ 출제 영역 : 조선 전기 중앙 정치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646~649, 863

■ 해설 : ③ 사화는 연산군에서 명종 때로 조선 전기에 해당되나 한국정치는 경신환국으로 봉당 정치가 변질된 조선 후기 숙종 때이다.

문 8.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 보건데,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기 바랍니다.

- ①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 ②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 ③ 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④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 출제 영역 :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성종의 업적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380, 382, 385, 524

■ 해설 : ③ 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한 것은 성종 때로 향교를 설립하여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① 서경 천도를 추진은 고려 정종이나 인종 때 묘청 등이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②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은 현종 때이다.
- ④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한 왕은 고려 태조가 훈요 십조에서 장려하였으나 성종은 지나친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연등회,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민주국사

문 9. 신라 승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 ① ㉠은 미륵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② ㉠은 무애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 ③ ㉡은 관음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 ④ ㉡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 출제 영역 : 원효와 의상

● 정답 : ①

▶ 2015년 민주국사 187, 293~296

■ 해설 : ①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하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미륵신앙의 중심은 진표가 창건한 금산사로 법상종이 개창되었다.

◆ 원효와 의상의 비교

구 분	원 효	의 상
신 분	6두품	진 골
저 서	대승기신론소, 십문화쟁론, 금강삼매경론, 화엄경소	화엄일승법계도
사상 체계	일심·화쟁 사상	화엄 사상
개 창	범성종(분황사)	화엄종(부석사)
영 향	의전 등 불교 통합	전제 왕권 강화
불교 대중화	아미타 신앙	아미타·관음신앙
당에 유학	가지 않음.	다녀왔음.
국사 칭호	화정 국사	원교 국사
관련 인물	요석 공주	선 묘

문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 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 독립의군부와 ㉡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 ① ㉠은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 ② ㉡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 ④ ㉠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민주국사

◆ 출제 영역 :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1370~1372

■ 해설 : 비밀 결사 단체는 일제가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였던 무단 통치 시기에 개화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으나 유림들도 조직하였다.

◆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

구분	독립 의군부(1912)	대한 광복회(1915)
조직	고종의 밀조로 임병찬 등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도,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	대구 지역에서 박상진과 김좌진을 중심으로 군대식 조직(의병 출신의 인사와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상인 등 중심으로 결성)
목표	전국적 의병 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과 전제군주제(복벽주의)	독립 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과 공화주의
활동	일본 내각 총리와 조선 총독부 관리에게 군권 반화 요구서 제출	국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사관학교 설립, 도고 면장 박용하를 비롯한 친일파 처단 등 가장 활발한 활동

문 11.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 대에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② 주(州)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되었다.
- ③ 5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 ④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 구역도 있었다.

◆ 출제 영역 :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207~208

■ 해설 : ③ 5소경은 군사·행정상요지에 설치한 특별 행정구역으로 장관을 사신이라 하였고 도독은 통일신라 9주나 발해의 15부에 파견한 지방 장관이다.

문 12.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 ② 개간지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 ③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
- ④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민주국사

◆ **출제 영역** :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

● **정답** : ①

▶ 2015년 민주국사 460, 479, 497

- 해설 : ① 광학보는 정종 때 승려의 면학을 위해 만든 재단이다.
 ② 공사전조법은 광종 때 시행하였다.
 ③ 면재법은 성종 때 시행하였다.

문 13.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중략)…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 『비변사등록』 -

- ①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②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③ 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④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 **출제 영역** : 조선 후기 포구의 발달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495~496, 984~985

- 해설 : 자료는 조선 후기 포구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으나 삼한통보는 고려 숙종 때 발행한 화폐이다.

문 14. 다음 중 ‘대한국 국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②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③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④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宣戰講和)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출제 영역** : 대한국 국제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1135, 1174, 1184, 1190

- 해설 : ① 내시부 폐지는 갑신정변의 정강.
 ②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은 갑오개혁 흥범 14조
 ③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은 독립협회 헌의 6조

민주국사

문 15. 연표의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	↑	↑
6·25 전쟁 발발 (1950. 6. 25)	서울수복 (1950. 9. 28)	휴전협정 체결 (1953. 7. 27)	

- ① (가) -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로 서울 수복이 가능하였다.
- ②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의 후퇴는 (나) 시기이다.
- ③ 애치슨 선언은 한국 전쟁 이전으로 (가) 이전 시기이다.
- ④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은 인천상륙작전 이전으로 (가) 시기이다.

◆ 출제 영역 : 한국 전쟁과 휴전 협정의 체결

● 정답 : ①

▶ 2015년 민주국사 1566~1568

- 해설 : ① (가) -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② (가) -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③ (나) -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문 16.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 <보 기> —

- ㄱ.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ㄴ.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 ㄷ.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발표하였다.
- ㄹ.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민주국사

◆ 출제 영역 :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 정답 : ②

▶ 2015년 민주국사 1201~1202, 1205~1207

- 해설 :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 해산이 있었다.
 - ㄱ.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은 1909년이다.
 - ㄴ.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던 시기는 1908년이다.
 - ㄷ. 민영환의 유서나 ㄹ.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 발표는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1905년에 있었다.

문 17.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 ②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 ③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 ④ 『과농소초』는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 출제 영역 : 우리나라 농서

● 정답 : ②

▶ 2015년 민주국사 798, 1035~1036

- 해설 : ② 『농사직설』은 세종 때 정초가 편찬한 농서로 농부의 실제 경험담인 씨앗저장법, 모내기법 등을 수록한 최초의 농서이다.
 - ① 『농가집성』은 신숙이 편찬한 농서이며, 이암은 농상집요를 소개하였다.
 - ③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편찬한 농서이나 박세당은 색경을 편찬하였다.
 - ④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편찬하였다.

문 18. 다음의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 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 ②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였다.
- ③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 ④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탕평 정국을 운영하였다.

민주국사

◆ 출제 영역 : 균역법과 영조

● 정답 : ④

▶ 2015년 민주국사 865~882, 965~966

■ 해설 :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영조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완론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 ①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는 숙종 때 경신환국을 계기로 대두되었다.
- ②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의 발생은 현종 발생하였다.
- ③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정2품 이상이 권력을 독점한 것은 세도 정치 시기이다.

문 19.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 우리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醫)에 들어가고 혹은 역(譯)에 들어가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중략)… 문장과 덕(德)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명공(名公) 거실(巨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 ① 집단으로 상소하여 청요직(淸要職) 허통(許通)을 요구하였다.
- ②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 ③ 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 ④ 유향소를 복립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 출제 영역 : 조선 중인

● 정답 : ①

▶ 2015년 민주국사 914~915

■ 해설 : 조선 후기 중인들은 서열의 신분 상승에 자극을 받아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인 허통(許通)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② 형평사를 창립은 백정 ③ 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던 것은 부농층 ④ 유향소 복립 등 향촌 자치제를 주장한 세력은 사림과

문 20. (가) ~ (라)는 광복을 전후해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 (다)
- (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민주국사

- ①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 ②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 ③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④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다.

◆ 출제 영역 : 광복 전후사건

● 정답 : ③

▶ 2015년 민주국사 1546, 1547, 1556~1559, 3권 부록

■ 해설 :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발족은 1945년 10월이며,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공포는 1948년 7월 17일이다.

- ③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광복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이다.
- ①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던 시기는 1946년 10월이다.
- ②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던 시기는 1948년 2월이다.
- ④ 2차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던 시기는 1947년 11월이다.